나주시, 스포츠마케팅 통한 ‘체류형 관광’ 대전환

‘2026 나주방문의 해’ 연계 집중 홍보
작년 3만여명 방문…60억 성과 기대
‘나주 1박 2득’ 등 숙박·소비 유도 전략

나주시 육상선수단과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최근 열린 제주MBC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서 ‘2026 나주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앞두고 스포츠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확장하며, 지역 내 숙박과 소비가 이뤄지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매개로 선수단과 가족 등 대규모 인원을 유치해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을 끌어올리는 스포츠관광 모델을 본격화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2026 제주MBC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나주시 육상선수단과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참가해 ‘2026 나주방문의 해’와 ‘2026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를 알리는 QR코드 티셔츠를 입고 완주하며 현장 홍보를 펼쳤다.

이어 같은달 27일 영암군에서 열린 전남도 22개 시군 체육회장단 회의에서도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인 ‘나주 1박 2득’을 집중 홍보하며 종목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 나섰다.

시는 전국·도 단위 체육행사와 연계해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방문객에게 주요 관광명소와 지역 특산물을 알림으로써 스포츠 관광 모델을 견고히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스포츠 대회 유치는 선수와 관계자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숙박과 식사 등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실제로 지난 2025년 기준 3만7천여명이 스포츠 행사를 위해 나주를 방문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약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올해 방문객 규모가 전년 대비 3천여명 증가한 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약 60억원 이상의 역대 최고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월11일 개최 예정인 ‘2026 전국 나주 마라톤대회’는 체류형 관광 전환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는 참가자들에게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자연스러운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평 파크골프장의 공인 구장 인증을 추진해 전국 대회 유치 기반을 닦는 한편, 하반기까지 제43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제45회 전국 남녀 종별 롤러스포츠대회 등 총 29개 대회를 차질 없이 개최해 스포츠 메카로서의 입지를 다질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체육은 사람을 모으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콘텐츠 중 하나”라며 “스포츠와 관광, 지역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 관광객들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머물며 다시 찾고 싶은 나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생태 교육·체험 융합”…함평 ‘나빛파크’ 내달 개장

135억원 투입 에듀테인먼트 조성
생태 습지·체험형 놀이터 등 배치
郡, 사계절 체류형 관광 명소 기대

이상익(사진 왼쪽서 두번째) 함평군수가 최근 ‘나빛파크’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생태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차세대 관광 거점인 ‘나빛파크’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날 나빛파크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2024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4월 제28회 함평 나비대축제 개막에 맞춰 개장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나빛파크는 생태 교육과 체험형 오락을 융합한 복합 에듀테인먼트 시설로, 지상 2층 건물과 약 1만1천㎡ 규모의 생태습지, 4천㎡ 크기의 체험형 놀이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50억원을 포함해 총 1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실내에는 ▲신비로운 나비의 숲 ▲나비 아트 공작소 ▲꽃줄기 나비마을 ▲팔랑팔랑 연구소 등 관람객이 곤충의 생태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4개 테마관이 들어선다.

야외 공간에는 생태와 예술을 결합한 가족 단위 체험 공간과 역동적인 모험 놀이 시설을 배치해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나빛파크를 어린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함평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지역 자원과 결합해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나빛파크를 제28회 나비대축제 기간 임시 개장하고 이후 상시 운영 체제를 구축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함평=기영규 기자

강진군 ‘쌀귀리 건강밥상’ 레시피 26종 개발

시범운영업체 10곳 최종 선정

강진군이 지역 농특산물인 쌀귀리를 활용한 건강밥상 레시피 26종의 개발을 완료했다.

5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우수 농특산물인 쌀귀리 소비를 늘려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관내 일반음식점과 푸소(FU-SO)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은행나무, 돌담한정식, 대통령밥상, 주식회사 다강, 병영연탄불고기, 꽃뜰, 동백골한옥, 온새미로, 숙이네 민박, 강진산들농원 등 시범운영업체 10곳을 최종 선정했다.

개발된 레시피는 고단백·저지방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쌀귀리의 영양적 특성을 살려 쌀귀리 샐러드, 단호박 식혜, 단호박 죽, 톳밥 등 26종으로 구성됐다. /강진=정영록 기자

완도군-한국수산회, ‘해조류박람회’ 협력

완도군은 (사)한국수산회와 손잡고 오는 5월 열리는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선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완도군수와 정영훈 (사)한국수산회 회장 등은 최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박람회 홍보 및 산업관 부스 운영, 2026 코리아 씨푸드 쇼 참가, 대국민 인식 제고를 통한 완도 수산물 소비 촉진 등 공동의 이익 증진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오는 5월2-7일까지 6일간 완도 해변공원과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열리며, 해조류 이해관 등 4개 전시관 운영을 비롯해 국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국제 학술 심포지엄 등이 진행된다.

/완도=윤보현 기자

진도군, 500㏊에 스마트농업 구축한다

농식품부 노지 육성지구 선정
95억 투입 2028년까지 조성

전국 최대 대파 주산지인 진도군이 95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따내며 기후 위기와 농촌 고령화에 맞설 첨단 스마트농업으로 대전환에 나선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에 선정됐다.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은 밭 농업 주산지에 정보기술(IT) 기반의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정부의 전략 사업이다.

이상 기후와 가격 폭락,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스마트농업을 구조 혁신의 해법으로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선정으로 진도군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국비 49억1천만원, 군비 30억1천만원, 자부담 15억8천만원 등 총 95억원을 투입한다.

서진도·선진·진도농협과 협력해 7개 읍·면에 500㏊ 규모의 스마트농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관수 및 관비 자동화 시스템, 병해충 사전 예측, 자율주행 농기계 등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기술이 전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산비를 대폭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농산물 수급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케이(K)-먹거리 사업과 연계해 선별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스마트 산지 유통 거점도 함께 조성한다.

현재 진도군의 대파 재배 면적은 1천52㏊로 전국 9.5%, 전남 36.1%를 차지하며 현재 1천390 농가가 재배에 참여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이 안착하면 대파와 배추를 재배하는 약 3천곳의 농가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희수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진도 대파 산업의 체계를 스마트 기반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농업을 집중 육성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대한민국 대파 1번지의 위상을 한층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전국 실업탁구단 11개 팀 영광서 스토브리그 돌입

영광군은 5일 “전국 실업탁구단 11개 팀, 200여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2026 시즌을 대비한 스토브리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스토브리그는 시즌 개막 전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팀 간 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이다.

참가 선수단은 팀별 맞대결과 전술 훈련, 체력 강화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며 조직력을 다지고 있으며 전국 실업 강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치면서 현장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는 쾌적한 실내 환경과 편리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훈련 기간 동안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숙박·음식점 이용이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국 실업탁구단이 영광군을 찾아 스토브리그를 실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하고, 지속적인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정치와 신뢰 ‘공천’이 답이다

취재수첩

정 해 선
지역특집부 국장

신뢰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는 일, 말과 행동의 일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선택 같은 사소한 행동이 차곡차곡 쌓이며 형성된다.

그리고 한 번 금이 간 신뢰는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 관계의 소모를 요구한다. 정치는 그 신뢰 위에서만 작동한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됐다. 선거철이면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이번에도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지역 정가를 맴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사전 내정설, 측근 개입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 여부 이전에 시민들의 인식이다.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정당이 아무리 제도적 절차를 강조해도,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신뢰는 쌓이지 않는다.

공당의 공천은 단순한 후보 추천이 아니다. 당을 지지해 온 시민과 당원에 대한 약속이며, 정치적 신용의 척도다. 공천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정당은 스스로 도덕적 기반을 허무는 셈이 된다.

시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는 구조적으로 더 민감하다. ‘가·나·다’ 순번에 따라 사실상 당락이 갈리는 현실에서, 순번 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요소로 받아들여 진다. 유권자의 선택 이전에 내부 결정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공천은 곧 권력 배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광역·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진행되는 권리당원 여론조사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정 지역에서 당원을 많이 확보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는 공정해 보이지만, 운영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의심은 남는다.

경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단순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부 갈등에 대한 우려다.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당의 결속력은 약화된다.

정치는 결과보다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공천은 정당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특정인의 의중이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는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당은 스스로 신뢰의 토대를 허물게 된다. 그리고 신뢰를 잃은 정치는 어떤 정책과 공약으로도 시민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다. 그러나 출발점이 불공정 논란이라면, 아무리 훌륭한 공약도 힘을 얻기 어렵다. 공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세운다면 그 과정 또한 공당다워야 한다.

정치의 생명은 신뢰다. 공천은 그 신뢰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CMYK